

소버린, SK 이사회와 “갈등 증폭”

임시주총 소집 이유로 이사회 역량 거론 ... 적대적 M&A 공세 속수무책

소버린자산운용이 SK와의 경영권 싸움을 다시 시작하면서 SK 이사회와의 갈등이 감지되고 있다.

소버린자산운용은 10월25일 최태원 SK 회장의 이사 자격 문제를 제기하며 정관 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이례적으로 SK 이사회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소버린은 2004년 3월 주주총회에서 SK와의 표대결에서 패하기는 했지만 SK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를 부각시켜 SK의 이사 10명 중 7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선진적인 이사회 구조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소버린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3월 정기주주총회 이후 7개월 동안 이사회에 시간을 주었지만 이사회는 기업의 건강한 기능을 저해하는 핵심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고 평가했다.

즉, 소버린은 기업의 투명성을 위해 선임된 7명의 사외이사도 결국 SK의 편으로 돌아서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사외이사들은 아직 개인적인 의견을 말할 단계가 아니라며 의견 개진을 자제하고 있지만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사회 사무국의 한 관계자는 “소버린이 3월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시 상정하겠다는 것에 대해 사외이사들도 굉장히 의아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소버린이 요구한 임시주주총회를 전체 주주를 대표해 거부할 권리가 있어 이사회에 결정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버린이 SK 이사회를 비난하면서까지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소버린이 이미 이사회에 대한 기대를 버렸다면 이사회에 거부권 행사로 인해 임시주주총회가 무산되더라도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낼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

물론, 법원의 판단이 전제되지만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소버린측이 SK의 직무와 재무에 대한 조사권한을 갖는 감사역을 파견할 수 있어 SK의 아킬레스건을 더욱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3월 주주총회에서 패배를 맛본 소버린이 이사회에 역량에 문제를 제기하면서까지 강수를 두고 나온 것은 이전과는 다른 전략으로 SK를 공략할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한편, 10월28일 중국에서 열리는 정기이사회에는 소버린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가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되나 구두보고 등의 형식으로 관련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4/10/28>